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</h1>			 대한민국
	보도	배포시 부터	배포	
			2020.7.17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황 기 정 사무관 (02-2100-2832)
	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 김 귀 범(044-215-2830)		남 기 인 사무관 (044-215-2833)
	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 최 재 효(02-759-4491)		박 동 민 과 장 (02-759-4495)
	산업은행 기업유동성지원팀장 우 정 훈(02-787-6613)		진 형 규 차 장 (02-787-6615)

제 목 :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· 기업어음(CP) 매입기구인 「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」가 설립되어 지원을 개시합니다

- 정부-한국은행-산업은행은 지난 5월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**10조원 규모**의 '**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 설립방안**'을 발표하였음*

※ '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' 보도자료(기재부, 5.20일) 참조

- 동 매입기구는 정부 재정-중앙은행-정책금융기관이 공조하여 **새로운 위기대응협업 모델**을 마련한 것으로서,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

* 역할분담 : [정부] 위험흡수 자원 지원 [한은] 유동성 공급 [산은] 매입기구 운영

- 유관기관들은 그동안 동 매입기구의 운영·투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·마무리하였고, 7월14일자로 '**기업유동성지원기구***' (이하 SPV)가 공식출범하였음

*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(SPV)

- ❶ 지난 7월8일,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SPV 출범을 위한 **자회사 설립 승인**을 의결하였으며,

- 이에 따라, 7월14일자로 SPV의 **법인 설립등기**를 완료하였음

- ❷ 7월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SPV에 대한 **대출 8조원**을 의결하였음

※ '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,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에 대한 대출 의결' 보도자료(한은, 7.17일) 참조

□ 동 SPV는 다음주중 1차 재원을 조성하고 회사채·CP 매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

① SPV 재원은 우선 3조원 규모*(출자 1조원+대출 2조원)로 조성 예정

- 나머지 7조원은 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

* 3조원 = 산은의 SPV 출자금 1조원 + 산은·한은 대출액 2조원
(2조원은 "산은 후순위 대출 : 한은 선순위 대출 = 1:8"의 비중으로 대출)

② SPV는 7월24일(잠정)부터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先매입(5.20.~7.13.)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·CP를 매입할 계획

□ SPV의 매입대상·조건은 既 발표한 설립 방안에 따라,

○ 신용등급별로는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, 비우량채(A~BBB등급) 위주로 매입

○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, CP의 경우 만기 3~6개월

○ 매입기간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('20.7.14.~'21.1.13.)간 매입

○ 매입가격은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기업들의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설정

□ SPV가 본격 가동될 경우, 최근 회사채시장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

○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, P-CBO,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시장안정 장치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

※ 붙임 : 「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」 운영 및 지원 방안 (FAQ 포함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